

- 과잉생산 상태가 되어 경제에 타격, 이로 인해 쿠바 내에서 스페인 지배에 항거하는 혁명운동 발생
- 스페인은 군대 파견하여 혁명운동 진압하려는 가운데 일반인 철조망 수용소에 격리하는 정책을 펼쳐 미국에서 대스페인 호전여론이 증가
 - 1897년 스페인에 자유주의 내각 등장하면서 쿠바에 대한 유화정책 펼쳤으나 오히려 혁명운동은 격화하고, 이에 스페인 왕당파는 쿠바에 대한 강경정책 더욱 주장
 - 1898년 1월 미국은 쿠바 내 미국인 생명과 재산 보호 명분으로 전함 메인 호를 아바나(Havana)에 파견하였는데, 2월에 원인불명으로 폭발하여 250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
 - 1898년 4월 미국의 맥킨리 대통령이 스페인에 전쟁선포하였고,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카리브해 그리고 스페인 식민지 마닐라에서 전쟁 전개
 - 미국의 스페인과의 전쟁에 대하여 영국은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, 독일은 반대하며 마닐라 침공이 있자 함정을 파견해 방해 시도
 - 스페인의 호소로 오스트리아가 주축이 되어 6개국의 공동서한을 미국 대통령에 전하였으나, 미국에 대한 무력개입을 각오하는 정도의 국가는 없었음
- 파리 평화조약(1898년 12월)
- 1898년 4월 미국에 대적할 수 없었던 스페인은 휴전조약을 체결 : 스페인은 쿠바에서 철수하며, 푸에르트리코, 마리아니스, 팜을 미국에 할양하며,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미닐라의 시, 만, 항구를 미국이 점령
 - 1898년 12월 파리 강화회의에 의한 평화조약 체결 :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 할양 및 쿠바의 독립에 합의하였고, 쿠바와 관련하여 스페인은 미국이 할양 받기를 원하였는데 이는 쿠바의 채무 4억 달러를 승계시키려는 의도여서 미국이 수용치 않음
 - 1901년 6월 미국과 쿠바의 조약 체결로 쿠바의 법적 지위 결정 : 미국은 군사점령한 상태로 쿠바의 시정권만 행사하다가 이 조약으로써 쿠바의 법적 지위 결정하였는데, 쿠바의 주권 인정하되 쿠바는 독립 저해할 조약의 체결을 금지, 쿠바는 과도한 채무에 관한 약속 금지, 미국은 쿠바의 독립과 질서유지 위해 개입할 권리, 관타나모를 미군기지화 등 내용 포함
 - 미국은 필리핀을 당초 병합할 계획은 아니었으나 군사점령 이후 병합으로 정책을 변경하였고, 대신 스페인에 2,000만 달러의 대가를 지불
 - 이후 스페인은 케롤라인 군도, 마리아나 군도 등을 독일에 매각하여 스페인의 식민지는 아프리카에 국한
- 문호개방정책(Open Door Policy)의 선언(1899년 9월 ~ 11월)
- 미국이 필리핀 병합으로 동북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지만 중국과의 교역은 전체의 2% 수준이었고, 중국은 중일전쟁 이후 열강에 의해 분열된

상태

- 중국의 최대무역국인 영국이 미국을 충동하여 문호개방정책을 선언하도록 유도하였으나 미국은 일단 거절하였으나, 1899년 여름 중국 주재 외교관들이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문호개방에 관한 비망록 제출하였고 공식 채택됨
 - 1989년 9월 ~ 11월에 미국의 헤이 국무장관은 문호개방에 관한 각서를 주요 국가들에 전달 : 중국 내의 세력범위 또는 조차지 내에서 그 어떠한 국가도 조약항 또는 기득권에 관여 불가, 중국의 관세율이 이런 세력범위 안에서도 적용되며 관세는 중국 해관이 징수, 그런 세력범위 안에서 항구세, 철도운임 등 자국민을 위한 편파적인 호혜조치 금지 등
 - 헤이 국무장관의 최초 문호개방선언은 소극적인 내용으로서, 열강의 기득권 인정, 중국의 영토보전 미언급, 광산 및 철도부설권 관해서도 침묵 등
 - 1900년 의화단 사건이 발생하여 베이징 주재 열강의 공사관이 포위되자 이의 구출 위해 미국은 2,500명의 군대를 보내 큰 역할을 담당한 이후 발언권을 강화
 - 1900년 7월 헤이 국무장관은 열강에 회한 발송 : 중국의 영토보전과 행정상의 보전이 미국의 기본정책임을 밝히고, 중국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고 차별없는 무역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
- 제국주의 노선의 채택
- 1904년 12월 루스벨트(T. Roosevelt) 대통령의 연두교서 : 미주에서도 고질적인 비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명국가의 개입 초래 될 수 있으며, 서반구에 있어서 이러한 비행이나 무능이 극악한 경우 미국은 먼로주의에 입각하여 비록 미국이 원치 않더라도 국제경찰력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음
 - 이는 미국이 먼로주의를 명분으로 미주에서 제국주의적 팽창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음

3. 비스르크 체제의 후유증 : 팽창적 민족주의의 결말

1) 비스마르크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 지지와 그 여파

- 유럽의 중심국가가 된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열강이 유럽 밖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을 하도록 지지함으로써 유럽질서의 현상유지를 추구
 - 영국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, 프랑스는 북부아프리카, 러시아는 극동 등지에서 제국주의적 팽창을 시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거나 지지함
- 유럽 밖 식민지 부족으로 선점된 영토를 둘러싼 열강 간 재분할 갈등
 - 중앙아시아 및 극동 지역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갈등
 - 북부 아프리카나 중동 등에서의 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 등의 갈등
- 독일의 제국주의적 세계정책 등장으로 식민지 갈등의 심화
 - 비스마르크가 지지한 제국주의적 팽창이 그의 사임 후 빌헬름 2세 하에서 독일에도 적용